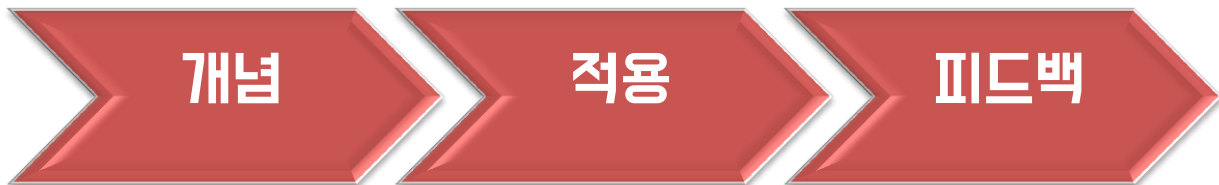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국어 계획



개념(기본부터 배경 지식으로)

기본 개념- 주제/ 세부 정보/ 구조 찾는 법

심화 개념- 세부 정보가 잘 찾아지지 않는 경우

풀이 스킬- 기본 풀이 원리/ 보기 문제/ 'ㄱ'에 대한 이해 문제

배경 지식- 과학/ 경제/ 철학 관련 용어와 기초적인 프로세스

ex) 현존

현존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생성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 쉽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현존의 핵심이야.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건 '생성 된다' 그리고 '지금'라는 표현이야. 현존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생성 되고 변화하게 돼. 변치 않는 자기 자신과 본질은 현존과는 매우 상반되는 개념인 것이지. 현존한다는 것은 자기 안의 본질 그 무엇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무엇인가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돼.

'지금'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야. 지금 당장 '지금'이라고 외쳐봐 그 '지금'은 바로 과거가 돼버려. 즉 지금 역시 끊임없이 과거라는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차이'에 의해서만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야.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국어 계획

쉽게 현존을 이해해 보자면 불타는 나무를 생각해보자. 불타는 나무는 불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돼. 이때 나무의 본질과 동질성은 파괴되게 되지. 이때 이 나무가 바로 현존자 즉 현존하는 것이고 불타는 현상이 현존이야.

기본 개념 심화 개념 그리고 풀이 스킬은 나중에는 비슷해짐

하지만 배경지식은 끝까지 차이를 보임

늘지 말고 미리 미리 배경지식 정리해두자

추천 책-

'교과서 독해/오르비 북스'(강추)

'basic 중학생을 위한 과학 용어 사전'

'철학 라이더를 위한 개념어 사전(심화)'

적용(매일 매일 주 5일은 반드시 지키기)

어떤 문제 풀래?

하루에 모의고사 독서 2지문// 문학 2지문// 화작문 각 1지문씩 풀자

문제는 가능하면 선별된 것을 푸는 것이 좋다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사관학교 기출- 김봉소 모의 or 상상 모의- 예전 수능&

리트' 순서를 추천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국어 계획

얼마나 풀래?

문제 풀이는 매일 40분

어떻게 풀래?

'독서 문학 화작문 순'으로 풀기

문제 풀기 전에는 기본/ 심화/ 풀이 개념을 한 번 리마인드 해보기

문제 풀 때는 개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읽어가기

독해에 5분 문제 풀이에 1분 30초-2분의 시간을 쓰기

가능하면 '문제의 모든 선지는 빠르게 글의 개념으로 바꾸기'

EX)

글: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한 예측을 실험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누적시켜 가는 것이다. 하지만 관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기존의 지식과 여러 조건들이 같이 고려될 때만 가설에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17 수능 변형-

포퍼: 가설에서 예측이 논리적 도출, 예측을 통해 가설을 확인& 지식을 누적

관인: 가설과 여러 조건을 같이 고민해야 예측이 도출, 예측만을 통해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X& 지식의 누적 X

선지: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국어 계획

누적적 지식(포퍼, 과학 지식의 누적)은 기존 지식에 관한 고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카인)X

피드백(적용 이후 바로 진행)

피드백(문제-원인- 해결/ 독해)

채집하고 바로

독해의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

글을 읽다가 당황했던 부분을 이해하자

이때는 바로 옆에 도표를 그리거나 구조를 그려둠으로써

그 부분의 주제

그 부분에서 어려웠던 개념 간 관계를 이해해야 해.

이후 글 읽기가 어려웠던

원인과 해결책을 정리하자.

독해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국어 계획

어떤 독해개념을 써야 하는 지 애매한 것

이해가 어려운 것

마지막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독해 기준점을 수정'하고

'기본적인 용어와 과정'을 정리해 이해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와 '어려울 때 넘어가는 연습'을

해보자

이 과정은 지문 당 15분을 넘기지 말자

EX)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에 집중해야지!

근데 이게 사건인가 저게 사건인가 헷갈린다. ㅏㅏ

쉽게 인물 갈등 배경에 동그라미 치는 걸로 바꾸자!

오답 관리(근거 찾기/ 문제)

이렇게 독해 피드백이 끝났다면

이제 문제에 관한 피드백이 들어가야 해.

정리할 문제는 우선 틀린 문제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국어 계획

찍어서 맞춘 문제

답이 헛갈렸던 문제들을 포함

정답에 확신이 없었던 모든 문제를 정리해야 해.

바로 노트에 하기 보다는 바로 바로 시험지에 하자.

이때는 각 선지의 근거를 찾는 연습들과

그 근거에서 선지를 이끌어 내는 논리를 익히는 연습이

필수적이야.

우선 각 선지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위해서는

각 선지에 대응하는 5가지 색깔의 펜을 준비하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문제를 풀면서

글에서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바로 바로 체크하자.

이렇게 체크된 이후에는 글의 내용들이

어떻게 선지의 내용으로 변화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

이 부분이 논리와 관련된 부분이야.

기본적으로 독서 지문은 문학과는 다르게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 시키거나 예시를 활용해 바꿔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국어 계획

이를 통해 글과는 약간 다른 선지가 나오게 돼

따라서 만점을 얻기 위해서는

오답할 때 글에서 근거를 찾는 것 뿐 아니라

이 근거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등장하는지도 봐야해.

사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논리가 들어가거나

수긍 되지 않는 부분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

이 논리를 확인 하는 것은 수능과 평가원 지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근거와 논리를 찾았다면

이제 풀이 스킬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으로 보기 문제라면

보기를 보기의 내용과 연관되는 문단이나 내용으로 바꾸어 주자.

EX) 김봉소 모의고사 단락 글

전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이유는 측정 도구의 정밀도 탓이 아니다. 이

는 입자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단일한 파장의 파동은 그 파동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의 운동량은 고정되어 있으나

퍼져 있으려는 파동의 성질로 인해 그 위치가 '어느 곳에 있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

입자는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파동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데 파동들이 많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국어 계획

이 중첩되어 있을수록 위치의 파악은 어느 정도 가능해지지만 그 부분의 운동량을 확정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양자 역학에서는 어느 위치에 입자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만 의미가 있다.

가능한 선지: 전자는(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운동량과 위치 확정이 불가, 확률) 특정 위치에서 운동하게 된다.(NOT 확률, YES 위치 확정)